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중간일자리 질적·양적 개선이 시급하다!

목 차

■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	3
3. 시사점	10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산업전략본부 : 임 희 정 연구 위 원 (2072-6218, limhj9@hri.co.kr)

□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중간일자리 양적·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 개요

중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에서 133%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다. 중간일자리는 국내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중간일자리 비중이 축소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중간일자리 규모는 증가세이나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4년 중간일자리 규모는 744.5만개로 2004년 594.4만개 대비 25.3%(150.1만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40.8%에서 2014년 39.6%로 하락한 것이다.

■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

중간일자리 변화를 인구 구조상 특징과 고용 형태, 산업과 직종별, 기업 규모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 성별, 연령별, 학력별 변화를 고찰한다. 그리고 고용 형태, 산업과 직종, 기업 규모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구 구조상 특징) 첫째, 성별 변화를 보면, 여성의 중간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임금 수준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여성 중간일자리 규모는 2004년 262.3만개에서 2014년 365.5만개로 39.3%(103.2만개) 증가했다. 중간일자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4.1%에서 2014년 49.1%로 상승했다. 하지만 중간일자리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대비 여성 비율이 2004년 89.8%에서 2014년 91.5%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둘째,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중간일자리 비중이 축소되었다. 20대와 30대의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각각 38.1%와 27.2%에서 2014년 27.0%와 25.8%로 하락했다. 특히, 20대의 중간일자리 규모가 2004년 226.6만명에서 2014년 201만명으로 11.3% 축소되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학력별로 보면, 전반적인 중간일자리 내에서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고학력화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대졸 이상' 비중은 2004년 각각 51.9%와 36.3%에서 2014년 66.2%와 62.4%로 상승했다.

(고용 형태별 특징)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중간일자리 비중은 축소되었으나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비정규직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36.9%에서 2014년 31.5%로 축소되었으나 규모는 2004년 137.3만개에서 2014년 163.8만개로 19.3% 증가했다.

(산업별 특징)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중간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 전체 중간자리 비중이 확대되었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서비스업 중간자리 비중은 2004년 62.6%에서 2014년 69.9%로 상승하였다.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간자리의 비중이 2004년 7.1%에서 2014년 15.5%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 중간자리 비중은 2004년 16.6%에서 2014년 13.9%로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특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간자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중간자리 비중이 2004년 82.8%에서 2014년 85.2%로 상승하였고 규모는 2004년 429.3만개에서 2014년 634.2만개로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중간자리 비중은 2004년 7.4%에서 2014년 5.8%로 하락했고 규모도 44.1만개에서 42.9만개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특징) 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의 중간자리 비중이 상승했다. 반면, 제조업은 모든 직종에서 비중이 하락했다. 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의 중간자리 비중은 2004년 16.3%에서 2014년 18.3%로 상승한 반면, 제조업 단순노무직 비중은 동기간 3.5%에서 3.1%로 하락했다.

■ 시사점

중간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사회 변화 니즈에 맞도록 서비스업 부문 등 전반적인 중간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중간자리에서 선택형 시간제 일자리 시행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자리 여건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가 혁신 기반인 지식경제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중간자리 확대를 위한 對 기업 고용지원 인센티브 강화, 인재 재교육 지원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중간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여성 중간일자리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중간자리 부문의 전반적인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 해소가 필요하다. 20대와 30대 청년층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취업정보 센터(안)'를 설립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중간자리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저위일자리의 상향 이동 유도 등 일자리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저위 일자리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상향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교육 대상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일자리 상향 이동 원활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1. 개요

- 중간일자리는 국내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데, 최근 국내 중간일자리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간일자리¹⁾ 규모는 증가세이나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미만으로 하락
 - 중간일자리 규모 : 중간일자리 규모는 2004년 594만 4,000개 2014년 744만 5,000개로 25.3%(150만 1,000개) 증가
 - 중간일자리 비중 : 중간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0.8%에서 2014년 39.6%로 하락
- 본 보고서에서는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 점검을 통해 중간일자리 양적·질적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 소득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중간일자리 규모 및 비중 변화 >



< 중간일자리 전년대비 증가 규모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1) 중간일자리는 중위임금(median wage)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산. 중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133%, 상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133%보다 큰 수준, 하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 미만을 의미.

- (연구 방법) 중간일자를 인구 구조상 특징, 고용 형태, 산업과 직종별, 기업 규모별 측면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 보고자함
 -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을 보기 위한 지표
 - 본 보고서는 성별, 연령, 학력별, 고용형태, 산업과 직종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을 점검
 - 중간일자리 관련 각종 지표는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적으로 계산
 - **중간일자리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로렌스(Lawrence, 1984)²⁾의 정의를 사용. 로렌스(1984)에 따르면 중간일자리(middle class jobs)는 중위 임금의 67%~133% 범위를 의미
 -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
 - 중간일자리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임

<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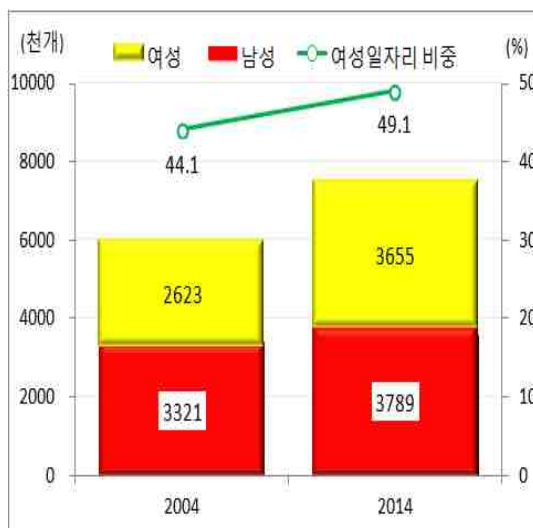
항목		분석 지표
인구구조	성 별	여성 및 남성 중간일자리 규모 및 비중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학력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비중
고용 형태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산업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일자리 비중
		지식기반 서비스업 변화
기업 규모별		100인 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 비중
직종별		단순노무, 기능직, 전문직 관련 일자리 비중

2) Lawrence, Robert Z.(1984),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Brookings Reviews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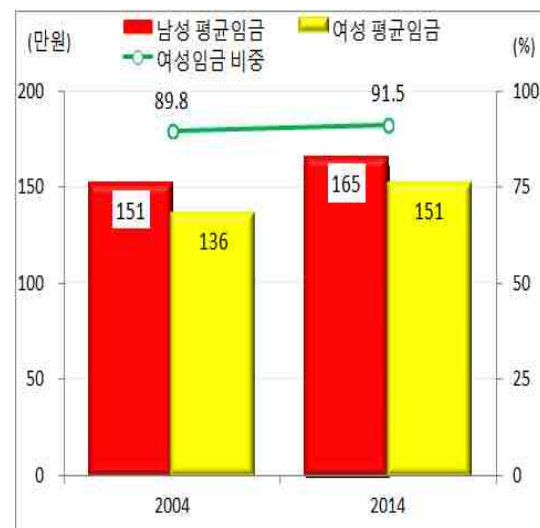
2.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

- (성별 변화) 여성의 중간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중간일자리의 성별 규모 : 2014년 여성 중간일자리 규모는 365만 5,000개로 2004년 262만 3,000개 대비 39.3%(103만 2,000개) 증가
 - 남성은 2004년 332만 1,000개에서 2014년 378만 9,000개로 14.1%(46만 8,000개) 증가
- 중간일자리의 성별 비중 : 여성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44.1%에서 2014년 49.1%로 상승
- 여성 중간일자리 임금 : 여성 월평균 임금의 남성 월평균 임금 대비 비율은 2004년 89.8%에서 2014년 91.5%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성별 중간일자리 규모 및 비중 변화 >



< 성별 월평균 실질임금 및 비중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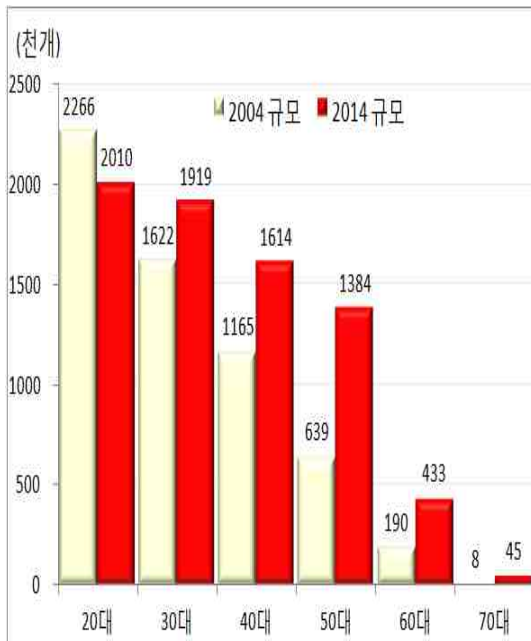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월평균 임금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혹은 보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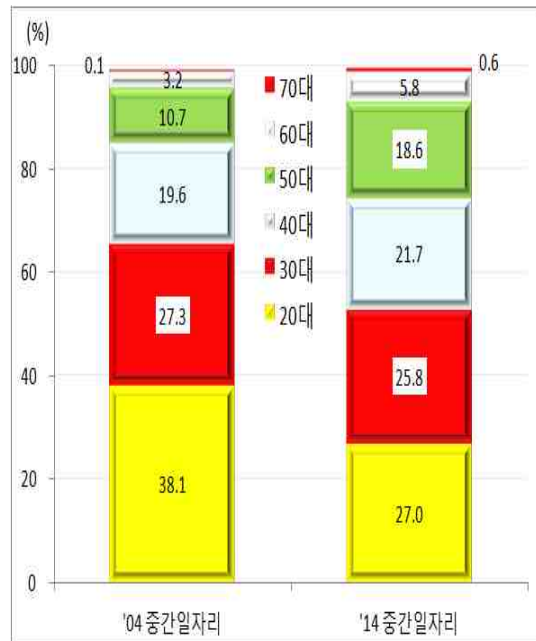
○ (연령별 변화) 20대와 30대의 중간일자리 비중 하락

- 연령별 규모 : 20대 중간일자리 규모는 10년전 보다 축소
 - 20대 중간일자리 규모가 2004년 226만 6,000개에서 2014년 201만개로 11.3% 축소
 - 30대의 중간일자리는 2004년 162만 2,000개에서 2014년 191만 9,000개로 18.3% 증가
 - 40대~60대 연령층의 중간일자리 규모는 10년 전 대비 각각 38.5%, 116.5%, 127.9% 증가하여 중간일자리 전체 증가율(25.3%)을 상회
- 연령별 비중 : 20대와 30대의 중간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하락
 - 특히, 20대의 중간일자리 비중이 10년 전 대비 11.1%p나 하락했고 총 인구 대비 20대 비중은 2.8%p 하락
 - 30대 중간일자리 비중이 2004년 27.3%에서 2014년 25.8%로 1.5%p 하락

< 중간일자리 연령대별 규모 >



< 중간일자리 연령대별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학력별 변화) 전반적인 중간일자리 내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20대와 30대의 고학력화가 심화

- **고학력화** : 중간일자리에서 20대와 30대의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
 - 전체 중간일자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2004년 32.9%에서 2014년 44.6%로 상승
 - 20대 '대졸 이상'의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51.9%에서 2014년 66.2%로 상승
 - 30대 '대졸 이상'의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36.3%에서 2014년 62.4%로 상승

< 중간일자리 학력별 규모 및 비중 > (단위: 천개, %)

	2004년			2014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연령	1,069 (18.0)	2,920 (49.1)	1,955 (32.9)	867 (11.6)	3,261 (43.8)	3,317 (44.6)
20대	49 (2.1)	1,042 (46.0)	1,175 (51.9)	20 (1.0)	660 (32.8)	1,330 (66.2)
30대	123 (7.6)	910 (56.1)	589 (36.3)	29 (1.5)	692 (36.1)	1,198 (62.4)
40대	395 (33.9)	641 (55.0)	129 (11.0)	121 (7.5)	994 (61.6)	499 (30.9)
50대	376 (58.8)	220 (34.5)	43 (6.7)	452 (32.7)	697 (50.3)	236 (17.0)
60대	112 (58.9)	59 (30.9)	19 (10.3)	215 (49.7)	167 (38.6)	51 (11.8)
70대	5 (66.0)	3 (34.0)	0 (0.0)	26 (57.4)	16 (35.3)	3 (7.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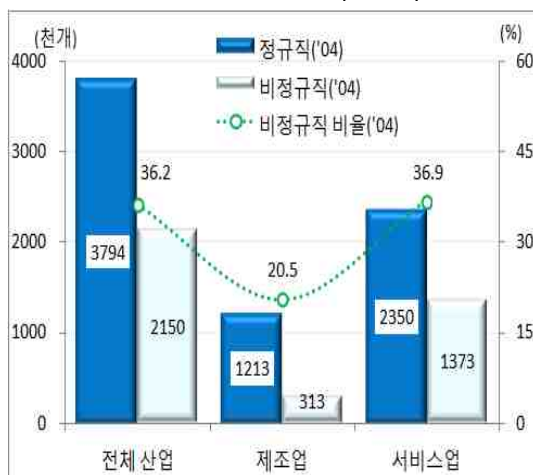
주 : 1) 학력별은 중졸이하(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초대졸, 대졸, 대학원졸)으로 구분.

2) ()안은 각 연령대에서의 학력별 비중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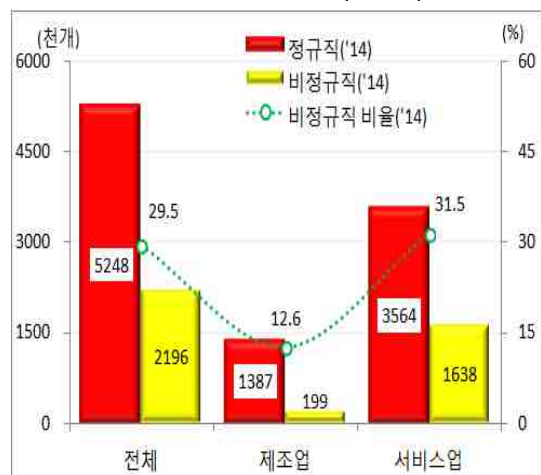
○ (고용 형태별 특징) 서비스업 내 비정규직 중간일자리 비중은 축소되었으나 규모는 증가

- 비정규직 비중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간일자리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 10년간 5%p 이상 하락
 - 제조업 중간일자리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20.5%에서 2014년 12.6%로 축소
 - 서비스업 중간일자리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6.9%에서 2014년 31.5%로 축소
 - 전체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6.2%에서 2014년 29.5%로 하락
- 비정규직 규모 : 서비스업 비정규직 중간일자리 규모는 20%에 근접한 증가율을 기록
 - 서비스업 비정규직은 2004년 137만 3,000개에서 2014년 163만 8,000개로 19.3% 증가
 - 한편, 제조업 비정규직 규모는 2004년 31만 3,000개에서 2014년 19만 9,000개로 36.4% 감소
 - 산업 전체로는 중간일자리 비정규직 규모가 2004년 215만개에서 2014년 216만 9,000개로 2.1% 증가

< 중간일자리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변화(2004) >



< 중간일자리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변화(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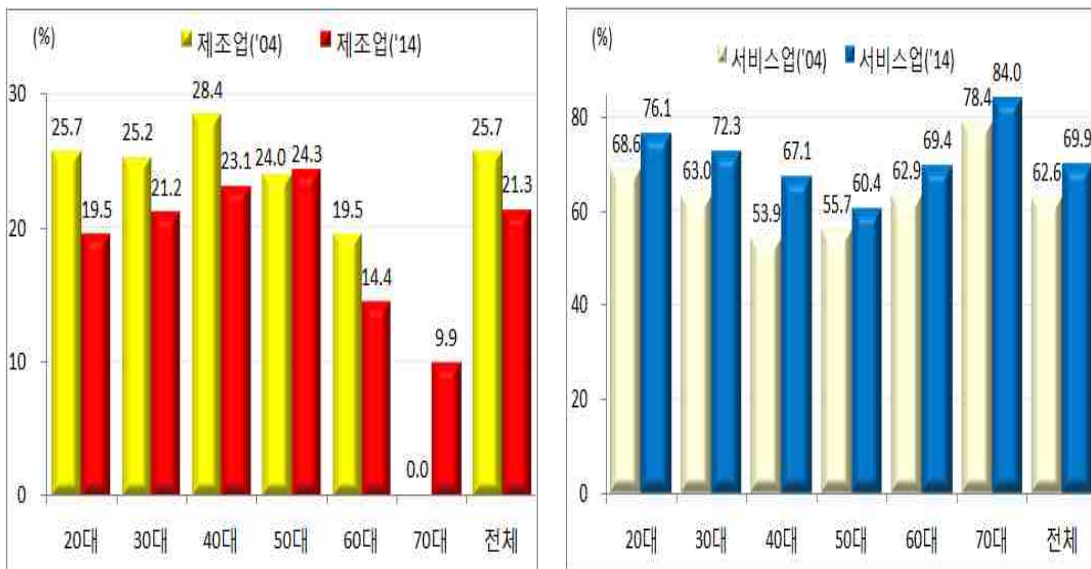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산업별 특징)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중간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 전체 중간일자리 비중이 확대.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 하락

- 산업별 변화 : 서비스업 중간일자리 비중이 상승

- 서비스업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62.6%에서 2014년 69.9%로 상승
- 제조업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25.7%에서 2014년 21.3%로 축소
- 제조업 중간일자리는 2004년에서 2014년 기간중 6만개 증가(3.9%, 152만 6,000개→158만 6,000개)에 그치나 서비스업 중간일자리가 147만 9,000개나 증가(39.7%, 372만 3,000개→520만 2,000개)

< 연령별 제조업 중간일자리 비중 변화 > < 연령별 서비스업 중간일자리 비중 변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1) 연령별 제조업(혹은 서비스업) 중간일자리 비중은 각연령별 중간일자리에서 제조업(혹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2) 산업별은 제조업(광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개인, 사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임.

- 세부 서비스업 변화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간일자리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³⁾의 비중 축소

3)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산업 분류 기준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을 포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간일자리 분야는 2004년 7.1%에서 2014년 15.5%로 축소된 반면, 규모는 2004년 26만 2,000에서 2014년 80만 7,000개로 208.0%(54만 5,000개) 증가
- 한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16.6%에서 2014년 13.9%로 축소

< 중간일지리의 세부 서비스업 규모와 비중 > < 전체일지리의 세부 서비스업 규모와 비중 >
(단위: 천개, %) (단위: 천개, %)

	중간일자리			전체일자리	
	2004	2014		2004	2014
서비스업	3,723 (100.0)	5,202 (100.0)	서비스업	9,634 (100.0)	13,446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262(7.1)	807(1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549(5.7)	1,638(12.1)
지식기반 서비스업	624(16.6)	724(13.9)	지식기반 서비스업	1,710(17.7)	2,322(17.3)
전문, 과학 및 기술	194(5.2)	255(4.9)	전문, 과학 및 기술	484(5.0)	883(6.6)
금융 및 보험	231(6.1)	254(4.9)	금융 및 보험	686(7.1)	805(6.0)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99(5.3)	215(4.1)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40(5.6)	634(4.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안은 세부 서비스업이 중간일자리 혹은 전체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기업 규모별 특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간일자리가 규모가 확대

- 중소기업 중간일자리 규모가 확대된 반면, 대기업(300인 이상) 규모 감소
- 중소기업(100인 미만 기업) 중간일자리 규모는 2004년 429만 3,000개에서 2014년 634만 2,000개로 47.7% 증가
- 중소기업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82.8%에서 2014년 85.2%로 상승
-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 중간일자리 규모는 2004년 44만 1,000개에서 2014년 42만 9,000개로 2.7% 감소
- 대기업 중간일자리 비중은 2004년 7.4%에서 5.8%로 축소

< 중간일자리 기업규모별 비중 > (단위: 천명, %)

	100인 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전체 연령	4,293(82.8)	6,342(85.2)	581(9.5)	673(9.0)	441(7.4)	429(5.8)
20대	1,760(77.7)	1,610(80.1)	257(11.4)	216(10.8)	248(11.0)	184(9.1)
30대	1,387(85.5)	1,577(82.2)	138(8.5)	201(10.5)	97(6.0)	141(7.3)
40대	1,005(86.3)	1,447(89.7)	107(9.2)	111(6.9)	53(4.5)	55(3.4)
50대	549(85.9)	1,238(89.5)	63(9.9)	109(7.9)	27(4.2)	37(2.7)
60대	172(90.7)	396(91.5)	12(6.5)	29(6.7)	5(2.8)	8(1.8)
70대	8(100.0)	43(95.5)	0(0.0)	1(3.1)	0(0.0)	1(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안은 각 연령대에서의 기업규모별 비중을 의미.

○ (직종별 특징) 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의 중간일자리 비중 상승

- 서비스업 부문의 단순노무직의 중간일자리 비중이 2004년 16.3%에서 2014년 18.3%로 상승
 - 제조업 내 중간일자리는 10년전 대비 3.9%(152만 6,000개→158만 6,000개) 증가에 그침
 - 한편, 서비스업 일자리는 10년전 대비 39.7%(372만 3,000개→520만 2,000개)나 증가하면서 관리 및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상승

< 중간일자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직종별 규모 및 비중 > (단위: 천명, %)

	2004			2014		
	관리 및 사무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관리 및 사무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중간일자리	5,944(100.0)			7,443(100.0)		
제조업	377(6.3)	943(15.9)	206(3.5)	400(5.4)	952(12.8)	234(3.1)
서비스업	1,623(27.3)	1,128(19.0)	972(16.3)	2,557(34.4)	1,284(17.2)	1,360(1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안은 중간일자리 전체에서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3. 시사점

- 중간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 필요
 - 첫째, 경제·사회 변화 니즈에 맞도록 서비스업 부문 등 전반적인 중간 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
 - 서비스업 중간일자리에서 선택형 시간제 일자리 시행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자리 여건 확대 필요
 - 국가 혁신 기반인 지식경제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중간일자리 확대를 위한 對 기업 고용지원 인센티브 강화, 인재 재교육 지원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
 - 한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중간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
 -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중간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
 - 한편, 여성 중간일자리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둘째, 중간일자리 부문의 전반적인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 해소 필요
 - 20대와 30대 청년층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취업정보센터(안)’의 설립·운영 및 이를 통해 기존 ‘청년의 취업정보망(위크넷)’의 낮은 인지도와 저조한 활용도를 보완해야 함
 - 중소기업 중간일자리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노력 확대
 - 셋째, 저위일자리의 상향 이동 유도 등 일자리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중·저위 일자리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상향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교육 대상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일자리 상향 이동 원활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 **HRI**

산업전략본부 임희정 연구위원 (02-2072-6218, limhj9@hri.co.kr)